

영산강사업단,부패 근절·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 시행

✎ 봉채영 기자 | ⓒ 승인 2025.04.14 16:13



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약식. 사진=영산강사업단 제공

[전남=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(단장 박형수)은 부패취약시기에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.

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(단장 박형수)은 춘계 휴가철, 가정의 달 등 부패취약시기에 부패를 방지하고,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약식 개최하고 청렴의지를 다졌다.

이번 청렴서약은 사업단 전 직원이 서약 내용을 직접 필사하고 서명 후 업무공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, 청렴 서약서를 스스로 필사하고 서명을 남김으로써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.

영산강사업단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관련 표어 공모전 개최, 직원 소통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청렴연수원 특별강좌,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릴레이 등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박형수 단장은 “청렴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가치”라며 “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



봉채영 기자 bcy2020@naver.com

저작권자 ©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